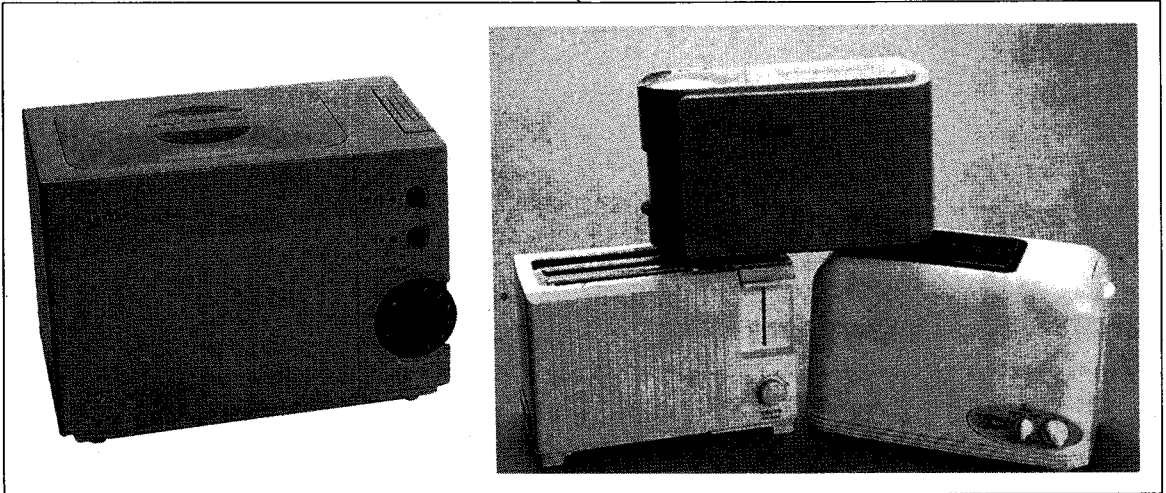


# 전기토스터 품질비교평가



식빵을 먹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전기토스터를 찾는 가정이 늘고 있다. 시중에는 많은 종류의 전기토스터가 유통되고 있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에게 상품선택 정보를 주기위하여 전기 토스터에 대한 제품의 사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테스트 하였다.

- 편집자 주 -

전기토스터는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됨에 따라 가정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됐다. 특히 아침식사를 빵과 커피로 대신하거나 아이들 간식용으로 식빵을 먹는 일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소비원의 시험결과에 의하면 몇몇 제품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 과열차단 장치(온도과승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몸체 외곽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제품도 있었다.

또한 일부 제품의 경우 전기토스터의 기본적인 빵굽기 기능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빵 투입구가 작아 빵을 넣고 빼기가 힘들고, 빵 투입구가 들출되어 있어 손을 데일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도 모니터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요즘 전기토스터는 주로 수입품이 유통되고 있다. 수입품들 대부분이 중국 등 동남아 지역의 현지 공장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고 있어 제품 성능이나 안전성 측면이 다소 우려된다. 다른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전

기토스터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인체의 위해는 물론 화재발생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소비원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8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시험과 더불어 주부 모니터에 의해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전기적 안전성

●TEFAL(중국산)제품은 몸체 외곽온도가 타사 제품보다 높게 나타나

전기토스터는 내부에 있는 히터의 열로써 빵을 굽는 제품이다. 즉 전기가 흐르는 히터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 제품에 이상이 있다면 과열이나 감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각 사 제품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감전 등의 위험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험했다.

최근에 나오는 전기토스터는 전자식 타이머에 의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빵이 자동으로 튀어 나오는 구조

이다.

그러나 전자식 타이머 방식은 내부 전기회로에 이상이 있으면 계속 가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품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과열 차단장치(온도과승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안전하다.

각 사 제품의 자동과열 차단장치 부착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우교역의 TEFAL(중국산) 및 한강상사의 KRUPS(스페인산) 제품은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터를 사용하는 전기토스터는 절연상태가 나쁠 경우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성이 있다. 전기적 안전성을 알아보는 시험항목의 하나인 '누전 및 감전사고의 위험 여부'를 검사했다. 전기적 절연상태를 확인하는 시험과 AC 1,500V의 전압을 1분간 연속하여 가하는 내전압 시험을 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히터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전열제품은 사람과 접촉하는 부위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시험대상 제품의 손잡이, 밑바닥 등의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기준에는 적합했다. 그러나 원우교역의 TEFAL(중국산) 제품은 몸체 외곽의 온도가 타사 제품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개선이 요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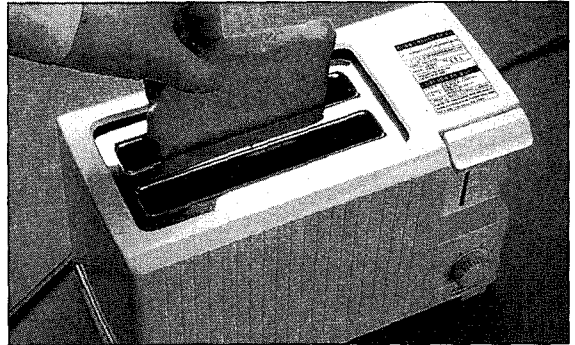
## 내구성

### ● 전제품 다 이상없는 것으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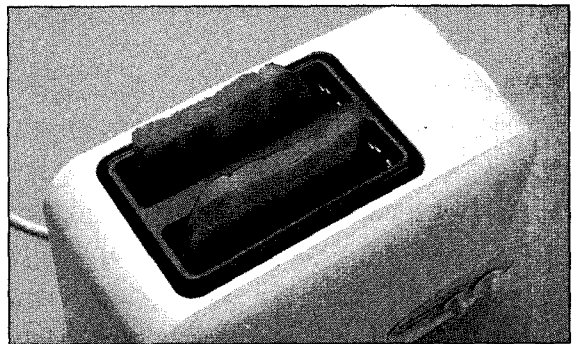
전기토스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은 뭐니뭐니해도 히터이다. 히터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격전압의 1.2배에 해당하는 전압을 히터에 가해 3분간 가열, 1분간 정지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1,000회 실시한 결과, 전 제품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기토스터는 제품구조가 다른 제품보다 단순하게 되어 있고 사용이 간편한 제품이지만 각 사 제품별로 외관 및 특성, 기능 등이 서로 다르다. 주부들로 구성된 모니터들이 실제로 빵을 구워가면서 제품의 사용성에 대하여 평가했다.

평가결과 삼성전자 및 아이피씨의 KENWOOD(중국산) 등 2개 제품은 사용성에서 타사 제품보다 우수한



▲ 조작의 편리성에 KRUPS 제품은 빵 투입구가 좁아서 빵을 넣고 빼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TEFAL 제품은 몸체 외곽의 온도가 타사 제품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빵 투입구가 돌출되어 있어 손을 데일 우려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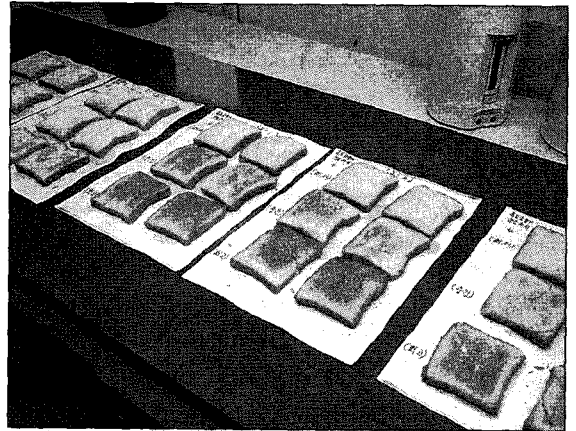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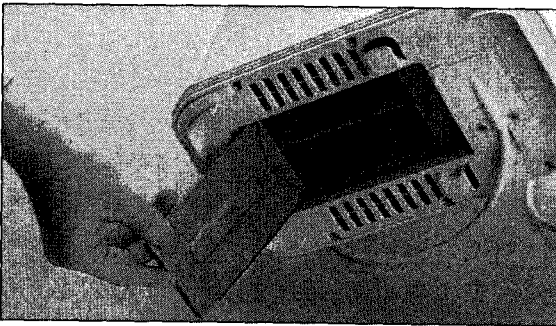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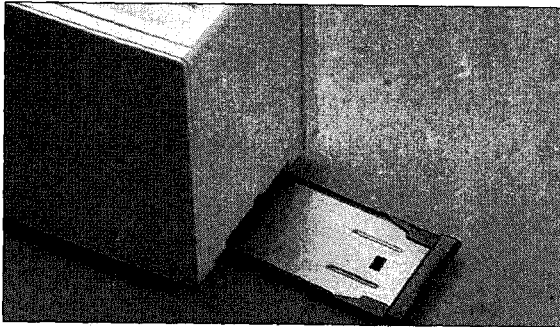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대우전자, 원우교역의 TEFAL(중국산), 한강상사의 KRUPS(스페인산) 등 3개 제품은 타사 제품보다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사용성

### ● 구조적 안전성

전기토스터 몸체의 금속부(빵 투입구, 방 부스리기 받이 등)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매끄럽게 마감처리 및 끝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빵을 굽는 과정(연속적으로 빵을 굽거나 구워진 빵을 꺼낼 때)에서 손이 토스터의 뜨거운 부분에 쉽게 닿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우전자, KRUPS 및 TEFAL 제품이 구조적인 끝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TEFAL 제품은 빵 투입구가 돌출되어 있어 손을 데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빵굽기 성능을 알아본 결과, 대우전자 제품은 빵이 덜 구워진 반면 TEFAL·필립스산업코리아·KRUPS 제품은 다소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가 편리한 제품(위)의 구조와 비교했을 때 대우전자, 동양매직, TEFAL 제품(아래)은 빵가루 받이 작동이 어렵거나 몸체 내부에 떨어진 빵가루를 청소하는데 불편했다.

● 조작의 편리성

빵을 넣고 빼기는 쉬운지, 각종 스위치가 기능별로 알기 쉽도록 표시되어 있는지, 온도설정 및 승강 레버의 조작은 편리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우전자 및 TEFAL 제품은 스위치조작이 어렵거나 아예 스위치가 없어 불편하였고, KRUPS 제품은 빵 투입구가 좁아서 빵을 넣고 빼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빵굽기 성능

온도설정을 중간 눈금에 맞추어 빵을 구웠을 때 구워진 빵의 표면이 노릇노릇(거의 갈색으로)하게 잘 구워졌는지, 빵의 모든 면(상하좌우, 앞뒷면)이 거의 균일하게 잘 구워졌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우전자 제품은 빵이 다소 덜 구워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TEFAL, 필립스산업코리아[제조사:PHILIPS(중국산)] 및 KRUPS 제품은 빵이 다소 탄 것으로 나타나 빵굽기 성능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청소의 편리성

청소하기 쉬운 구조인지, 청소하기 쉽도록 빵가루 받

이는 잘 분리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우전자, 동양매직[제조사 : KENWOOD(중국산)] 및 TEFAL 제품은 빵가루 받이 작동이 어렵거나 몸체 내부에 떨어진 빵가루를 청소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스트 결과

● 일부 수입품의 품질에서 문제점 나타나

시중에 유통중인 8개 업체 제품의 전기적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수입품이 품질 및 안전성, 사용성 등 전반적인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을 참고로 소비자들은 전기 토스터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겠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2개 업체 제품이 안전기능 미비로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에 의한 사용성에서는 3개 업체 제품이 보통, 3개업체 제품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전기토스터는 제품 구조 및 안전성, 사용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